

## 2010.11.29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미국, 새로운 마케팅규칙에 대한 축산가공업계 불안 고조

## 1. Agra-net(2010.11.23) 주요 내용

- 지난 6월 미 농무부 산하 육류검역국(GIPSA)은 가금류(Poultry)와 축산물(Livestock)에 대한 마케팅규칙(Marketing rules)을 공표함.
  - 2008년 농업법(2008 Farm Bill) 및 도축장 및 양돈장에 관한 조례(the Packers and Stockyards Act)에 근거를 두고 있음.
- 새로운 축산물 마케팅규칙은 불공정행위, 부당거래, 보복행위 등으로 부터 축산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제공함.
  - 축산업 생산의 절대적 규모 축소 및 생산자 수취 비중(Grower share) 하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.
  - 돈육산업에서 생산자 수취 비중은 1980년 50%에서 2009년 24.5%로 하락
  - 가금류의 경우에도 생산자 수취 가격은 마리당 34센트인 데 반해, 가공업체는 마리당 3.23달러를 수취
- 이번에 공표된 마케팅규칙에 대해 축산가공업계는 헌법에 위배되고,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함.
  - 전국가금협회(National Chicken Council), 미국 양계협회(U.S. Poultry Egg Assosiation) 등 축산가공업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GIPSA에 제출함.
  - 축산가공업계에서는 반론의 근거로서,
    - 1) 생산자 간 경쟁 감소로 인해 생산성 높은 생산자들의 인센티브 감소
    - 2) 경제적 효과 미비(백만 달러 미만으로 예상)
    - 3) 공정성 훼손 등을 제시하고 있음.

- 한편, 미 농무부 Vilsack 장관은 공청회 등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, 축산업계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표명함.

## 2. 시사점

- 지난 배추파동 이후 국내에서도 생산농가의 낮은 수취비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,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음.
- 가공업체에 비해 교섭력이 약한 축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케팅 규칙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조율과정 참고 필요

## □ 일본, 올해 곡물 수입량 증가

## 1. Agra-net(2010.11.23) 주요 내용

- 올해 전세계적으로 곡물 생산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올해 9월 까지 일본의 곡물 수입량이 전년대비 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일본은 전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으로, 주로 미국·호주·아르헨티나로부터 곡물을 수입함.
- 제네바 글로벌무역정보센터(GTIS)에 따르면, 일본은 올해 9월까지 총 1,939만 톤의 곡물을 수입했음.
  - ※ 같은 기간동안 한국은 전세계 곡물 수입 3위로 1,010만 톤 수입
  - 국가별로는 전체의 74%인 1,436만 톤을 미국에서 수입하였고, 호주에서 185만 톤을 수입함.
- 품목별로는 밀 수입량이 총 430만 톤으로 전년대비 36% 증가하였으며,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됨(밀 소비의 90% 이상을 수입에 의존).
  - 옥수수 수입은 전년대비 3% 감소하였으나, 조곡(Coarse grain)은 12백만 톤 수입되어 여전히 일본 내 수입되는 주요 곡물임.

- 한편, 올해 일본의 곡물 수입 급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아르헨티나는 수출이 100만 톤에서 전년대비 383% 급증하는 등 세계 곡물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음.

## 2. 시사점

- 전 세계적인 곡물 생산 감소세로 인해, 곡물 수입선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.
- 일본 뿐 아니라 중국의 곡물 수입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,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음.

\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